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국장



종계일반검정 왜 필요한가? 계통보증서는 종계현황 파악 한계

전 세계적으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계열사를 대변하는 한 잡지를 통해 분회(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계일반검정을 강하게 부정하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종계가 육종회사에서 발급하는 병아리계통보증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전 세계 3~4개의 육종회사에서 생산되는 순계(PL)로부터 공급되는 원종계와 종계를 수입하는 국내실정에서 굳이 종계일반검정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병아리계통보증서는 수입에 필요한 서류종의 하나로 단순 품종만을 입증해주는 서류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발급하는 종계일반검정확인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정부가 뒤늦게 종계일반검정의 필요성을 인식해 금년부터 20주령 이후에는 반드시 종계일반검정을 받아야만 종계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하였다. 축산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종계의 정의에 계통보증서는 20주령 이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계통보증서만으로는 육성과 성계로 이어지는 종계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열사들은 이들을 대변하는 월간지 '월간닭고기'를 통해 '육용종계에서의 가축검정 과연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그들만의 논리없는 주장을 펼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종계일반검정에 대해서는 거대 계열사를 업고 움직이는 '육계협회'를 이용해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만을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다.

종계일반검정은 대한양계협회가 통합되던 197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축산법 제7조에 의거 양계협회가 닭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행되고 있는 협회 고유의 업무이다.

양계협회에서는 20주령이 되어 생산에 참여하는 종계를 대상으로 종계일반검정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확인서에는 종계의 발생일자, 도태예정일자, 소유자, 입식수수 등 당해 종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발급대장을 기록, 보관하면서 종계 수급동향 등 통계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종계의 폐사가 발생했을 경우 종계의 진위여부 판단에 가장 공적인 서류로 활용되고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종축업의 대상)에도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번식용 씨알 즉 '종란'을 규정함에 있어 축산법 제 7조에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종계일반검정의 필요성을 재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계협회는 수급조절사업의 일환으로 종계 DB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는 종계의 이력 및 입식수수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종계일반검정확인서가 필수 서류이며, 특히 병아리 및 닭고기, 계란의 이력추적시스템 역할도 병행할 계획이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변을 통해 종계산업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행위는 업계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언론으로써 바른 보도를 기대한다.



미국 AI 사태를 보면서 국내 AI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

시가 뇌리에서 잊혀질만도 하지만 한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상시화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도래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 AI백신 사용에 대한 찬반이 이는 등 최후의 보루인 백신까지 들먹이는걸 보면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시가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정부에서도 시예방통제센터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마련하는 등 상시방역체제의 기틀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가금학회에서 29일 개최하는 춘계심포지움의 주제가 AI이며, 6월 16, 17일 본회에서 개최하는 질병방역세미나도 시 예방 등 주요질병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등 질병청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 양계생산지인 미국의 경우 금년 시가 발생, 급속도로 퍼지면서 아이오와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금년 발생한 시로 3,700만수의 가금류를 살 처분되었으며, 경제적인 손실도 1조원(약 10억달러)으로 평가하는 등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미국의 AI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이라도 재앙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리가 중간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살처분 처리비용을 농가에 전가시키려는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오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시발생은 전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이므로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근절은 소원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